금주의 법구-〈아함경〉
맹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악한 벗을 두려워하라.
악한 벗은 마음을 파멸시킨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194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3월 10일) 2018년 4월 25일 수요일

文, 대통령 최초 10.27법난 유감 표명

종단협 한반도 평화 기원법회서 "불교계 염원에 담담히 걷겠다"

文 "화쟁으로 남북문제 해결"
한국불교와 국민 행복 염원해
현직 대통령으로서 5번째 참석
北조선불교도연맹도 축전 보내



문재인 대통령이 4월 17일 열린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기원법회'서 신군부에 의한 한국불교 침탈사건인 10.27법난에 대해 대통령 최초로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종단협 회장 설정 스님이 부처님전에 삼귀의례를 올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신군부에 의한 한국불교 침탈사건인 10.27법난에 대해 공식 유감을 표명해 눈길을 끈다. 남북정상회담을 열흘 앞두고 열린 한국불교계의 한반도 평화 기원법회서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불교계와 함께 한반도 평화와 국민 행복을 기원했다. 특히 불교 공휴일 공식명칭인 석가탄신일이 '부처님오신날'로 변경된 이후 현 정부와 불교계의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내달 거행될 봉축행사의 의미도 더해졌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설정, 조계종 총무원장)는 4월 17일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볼룸서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 · 김정숙 여사가 참석해 각 종단 총무원장을 비롯한 불교계 지도자들과 만나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회향과 한반도 평화, 국민행복을 기원했다. 또한 주요사찰 주지스님, 정관계 인사, 재가불자 대표 등 10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공식명칭이 변경된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했다.



文대통령의 '말말말'

- 정상회담 준비하며 '화쟁' 깊이 생각
- 佛法서 지속가능한 평화 지혜 찾아
- 世界一花 이루려면 불교 역할 중요
- 불교계 명예 온전히 회복돼 융성하길
- 불교 세계관이 저의 세계관의 한 축

文대통령, 10.27법난 유감표명 '눈길'

문재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5번째로 불교계 주최 국가기원법회에 참석했다. 앞서 1981년 전두환 前대통령을 시작으로 2005 · 2007년 노무현 前대통령, 2009년 이명박 前대통령, 2013년 박근혜 前대통령이 불교계 기원법회에 자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가장 먼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 불교 사부대중이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불교의 소중한 유산인 화쟁을 깊이 생각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가장 시급한 과제이고,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라며 "화쟁정신이 한반도에 실현돼 갈등과 분열이 해소되도록 간절한 원력으로 기도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세계일화를 이루기 위해 어느 때보다 불교 역할이 중요하다. 한분 한분이 빈자일등이 돼 달라. 지극한 성원과 정성으로 밝힌 등불이 한반도를 넘어 세계에 평화의 길을 밝히고, 불자대중이 모아주신 염원을 되새기며 더욱 지혜롭고 담담하게 걸어가겠다"면서 "불교 정신은 알게 모르게 국민 의식 속에 뿌리 깊게 배어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파사현정과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비행은 우리사회를 성숙시키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저력이 됐다"고 평가한 뒤 남북교류를 넘어 세계구호에 나서는 불교계 활동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10.27법난에 대한 유감을 현직 대통령 최초로 표명했다. 1988년 12월 강영훈 前국무총리가 10.27법난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한 사례는 있으나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불교는 군부독재시절 국가권력에 의해 성역을 침탈당하는 가슴 아픈 일을 겪었다. 38년 전, 신군부가 전국사찰을 짓밟고 무고한 스님들을 연행한 10.27법난이 그것"이라며 "불교계에 여전히 남은 깊은 상처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이 청정하면 여러 사람이 청정해지고, 여러 사람이 청정하면 온 세상이 맑아진다고 하셨다. 이런 원력으로 불교가 한국사회를 정의롭게 이끄는 힘이 되길 바란다"면서 "맑은 기운을 듬뿍 받으니 정상회담이 잘 될 것 같다. 한반도에 평화와 화합이 이뤄지도록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佛法 아래 대자비 실천 다짐

설정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남북 문제는 한국불교의 사상과 전통으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화합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끌어안을 때 가능하다"며 "한국불교는 온 국민과 더불어 수행하고 깨달음을 구하는 대승불교의 정신을 독자적으로 발전시켜왔다. 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로 모든 것은 통한다는 원융회통 사상으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해왔다"고 한국불교 1700년 역사에 담긴 화합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정 스님은 〈화엄경〉 속 '인해방편이수치(忍海方便已修治) 고능엄정무변찰(故能嚴無邊刹)'을 언급한 뒤 "인욕의 방편을 잘 닦아서 세상을 청정하게 장엄해 치우치지 않고 화합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자는 경전 가르침이 그대로 현실이 됐다"며 "(남북)대화는 위기상황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먼저 손을 내밀어 오신 대통령과 국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결과다. 정상회담의 성공적 회향과 이어질 주변 강대국들과의 외교 현장서도 우리는 세계일화와 같은 큰 가치와 정신으로 각국의 이해관계를 아울러 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종단협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29개 회원종단 소속 1만5300여 개 전국 사찰서 일주일간 아침, 저녁으로 축원을 올리고, 회담 당일 오전 10시 33번의 타종식을 일제히 실시할 예정이다.

법회 말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설정 스님은 안개꽃과 지화로 장엄한 한반도 지도에서 휴전선 위치에 연꽃을 꽂으며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한편 강수린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장은 기원법회에 앞서 10일 '조선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기원법회 앞'이라는 제목의 축전을 조계종에 보냈다. 강 위원장은 "온 겨레가 강렬한 지향과 열망을 뜨겁게 분출시켜 불신과 대결로 얼어붙은 이 땅에 민족적 화해와 단합, 평화의 새봄을 불러왔다. 역사적 민족단합의 봄기운을 풍요가을의 결실로 이어가이 위해서는 온 겨레가 힘을 합쳐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법회에 앞서 식전 행사로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 홍보영상 시청과 조계종 불교음악원의 전통문화공연이 펼쳐졌다. 이어 불교 전통의식인 명고 · 명종, 육법공양, 삼귀의례, 예불, 축원(종단협 수석부회장 문덕 스님), 반야심경 독송이 진행됐다.

전법 활성화 위한 대중공사 열린다

조계종 전법단 2차회의서 오는 9월 13일 개최 결의

침체된 불교 교세를 되살리기 위한 전법 대중공사가 열린다. 조계종 전법단(단장 가섭, 조계종 포교부장)은 4월 19일 제2차 조계종 전법단 대표자 회의를 열고 9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전법 대중공사'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전법단 대표자 회의에는 체육인 전법단, 경찰 전법단, 장애인 전법단, 병원 전법단, 청년대학생 전법단, 국제 전법단, 교정교화 전법단, 신도시 전법단, 어린이청소년 전법단, 어르신 전법단, 군 전법단 대표자와 실무자 25명이 동참했다.

먼저 전법 대중공사는 △전법단 역할과 방향(청년대학생전법단장 본공 스님) △경찰 · 교정교화 · 청년대학생 · 어린이청소년 · 어르신 분야 전법활동 방안 △지역불교 활성화 및 포교네트워크 구축 등 세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특히 세번째 주제인 포교네트워크 구축에서는 전법단과 포교원 산하단체 협력사업이 논의될 예정이며 발제가 끝난 후에는 발제 주제들에 대한 전체 토론 및 향후 과제가 도출될 예정이다.

전법단 측은 "불자 인구 감소 국면은 결국 전법 활성화로 돌파할 수 밖에 없다. 전법 활성화를 위해 대중들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함께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노덕현 기자

'佛島' 제주는 지금 방송 포교 전성시대

BBS, BTN 제주 진출 잇달아

불심(佛心)의 섬 제주가 불교 방송 포교의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불교를 대표하는 방송국들이 잇달아 제주에 진출했기 때문.

BBS불교방송(사장 선상신)은 4월 11일부터 KCTV제주방송 채널 376번을 통해 TV방송을 시작했다.

또한, 정부로부터 제주지역 FM 94.9 MHz 주파수를 허가받은 BBS불교방송은 올해 BBS제주불교방송 개국을 목표로, 설립추진위원회 구성과 성금불사, 기반 구축 작업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태진 BBS제주불교방송 본부장은 "제주도에서 BBS TV 시청이 가능해졌고 올해 BBS제주불교방송이 개국하면, 라디오와 TV를 통해 방송포교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는 4월 13일 제주시 아라동에 제주지사를 개소하며 본격적인 제주 시대를 알렸다. BTN는 제주지사가 개소하면서 전국에서 방송 포교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 구본일 BTN불교TV 대표이사는 "향후 BTN이 제주불교계 큰 힘이 될 수 있는 제주의 방송언론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2018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4.27
금요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광장

2만 수보리의 합창 · 두번째 이야기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T. 02-733-7277 F. 02-733-7278 www.LBA.or.kr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금강경 독송정진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주관| (사)날마다 좋은날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후원|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한국관광공사 KBS 한국방송